

전남도 신규 공무원 708명의 벽찬 사연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농사 짓는 아버지는 눈에 계셨네요. 통화를 끝낸 뒤 장녀가 큰 일을 해냈다고 자랑하며 울었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웅기종기 모여 제수음식을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담양군 일반행정직 9급에 합격한 방소영(여·28)씨는 대학 졸업 후 학원강사로 지내다 공직에 도전한지 2년여 만에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장녀인 그녀는 농사 지으며 4남매를 키운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에 더 뿌듯했다고 전했다.

방씨는 “안정적으로 남에게 보탬이 되는 직업을 갖고 싶어 공직에 도전했다”

며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여러번 포기하려 했지만 물고 늘어져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다섯살 때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정종훈(29)씨도 4년간 계약직 신분에서 ‘별(정규직)’을 달았다. 강진군청에서 사회복지분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는 공직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신분차’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님의 만류를 뒤로 하고 공부 3년 만에 합격했다.

정씨는 “복지정책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봉착해 도전하게 됐다”며 “교통

“장애 딛고 계약직서 판 ★ 최고의 추석 선물이죠”

(정규직)

28세 女 “농사 짓는 아버님께서 울먹... 효도해서 기쁘요”
33세 男 “4년만에 백수 청산...이제 장가 갈 준비 해야죠”
나이제한 폐지...머리 희끗 56세·애민 얼굴 18세도 ‘동기’

사고 이후 아들 뒷바라지만 해오신 부모님께 합격소식을 전해드렸던 순간의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수산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후 4년만에 합격, ‘장가’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3년간 세무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그는 고향인 진도의 특성에 맞게 수산직으로 갈아탄 뒤 채 1년이 안 돼 축

배를 들었다. 그는 “고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실례고 긴장되지만 주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했다.

갓가지 사연을 지닌 10~50대의 신규 공직자 708명이 2일 오전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전남도청 2층 김대중강당에 모여 들었다. 최고 45.6대1(순천시), 평균

12.3대1의 경쟁을 이겨낸 이들의 만면에는 미소와 함께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난 2008년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40~50대 중년에서, 대학 졸업 후 수년 간 ‘공시’에 매달렸던 20~30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애민 청년도 이 자리에서 ‘동기’로 묶였다.

올해 최연장자는 기업체에 다니다가 나주시 일반행정 9급에 합격한 김형운(56)씨로, 전남도 일반행정 9급에 합격한 양선빈(18)군과는 무려 38살의 차이가 난다. 김씨는 전국적으로도 공직에 임명한 최연장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연장자의 경우 연륜을 감안해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2일 임용예정 기관별 등록을 마친 후 다음달부터 수습 등 일정 기간 현장 적응교육과 신규자교육을 거쳐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강사로 나선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 “공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 즉 일을 잘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며 “합격은 여러분에게 시작일 뿐이며,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김 부지사의 특강에 이어 전남도 시·군 향우회장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고 ‘남도 국악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은 뒤 귀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문화 주부들이 빛은 송편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2일 월산동 광주 남부교회에서 남구 새마을 부녀자회 회원들과 송편을 빚고 있다. 송편은 남구 관내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10세대에 전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예산 5% 증액...노인 무료 독감 접종

당정, 예산편성 방향 회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5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

위원회, 정부에서 방문기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노인 독감무료 접종은 새누리당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에 따른 예산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다.

이러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면 받는 셀프주유소
운전자 “가격차 없고 불편” ▶8면

2015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 광주·전남·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대기업

지역	기업	업종	연계 근거	개소 시기
광주	현대·기아차	자동차	광주 기아차 공장 중심 자동차 관련 활동 지원	2014년 10월 ~ 2015년 초
전남	GS	건설·에너지	여천 석유화학단지 대표기업	
전북	효성	탄소섬유	전주 탄소클러스터 핵심기업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이 1대1 전담 지원

광주-현대·기아차

전남-GS, 전북-효성

광주에 현대·기아차, 전남에 GS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1로 전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이 지역 내 정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하고, 사업 모델 및 상품 개발,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전 단계에 걸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점으로 초기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과 마케팅, 기술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양측 간 연계는 해당 기업의 주력 분

야와 지역 연구,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협의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미 문을 연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삼성그룹이, 대전에서는 SK 그룹이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개소할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자동차, 전북은 효성, 전남은 GS, 부산은 롯데, 경남은 두산, 인천은 한진, 경기는 KT, 충북은 LG, 충남은 한화, 경북은 삼성, 강원은 네이버가 각각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CJ, 울산은 현대중공업, 제주는 다음, 세종은 SK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담당할 광주센터는 광주 기아차 공장 중심의 자동차 관련 활동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센터는 담당할 GS그룹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표기업으로, 건설·에너지 분야를 육성할 예정이다. 전북센터는 효성그룹이 맡아 탄소섬유를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터전을 불태우라

BURNING DOWN THE HOUSE

2014광주비엔날레 9.5-11.9

올 가을, 20년 역사를 지닌 아시아 최대 축제이자 세계 5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정관념과 질서를 불태우라” ... 변화 향한 뜨거운 움직임
현대미술 스타 제레미 델러 등 38개국 109명 작가 참여
회화·설치·건축·퍼포먼스·미디어 등 동시대 예술형식의 향연